



유아들은 유아교육기관에 입학하면서 가정 이 아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과업에 직면하게 된다.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 적응 한다는 것은 기관에서 생활하는 동안 자신의 욕구나 특성을 잘 조절하여 환경에 자신을 잘 맞추고, 스스로의 욕구 충족과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 형성을 위해 환경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김혜수, 2015).

유아교육기관 적응은 유아기뿐만 아니라 이후의 삶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져 왔다(DiPerna, Lei, & Reid, 2007; O'Neil, Welsh, Parke, Wang, & Strand, 1997). 최근에는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조기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영유아들이 이른 시기부터 많은 시간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보내고 있는데, 이에 따라 유아교육기관 적응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유아교육기관 적응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요인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유아교육기관 적응의 개인차와 관련된 요인에는 크게 유아 개인 내 요인과 대인 간 요인이 있다. 유아교육기관 적응의 개인차와 관련이 있는 개인 내 요인 가운데 하나로 사회적 위축을 들 수 있다. 사회적 위축은 '아동 스스로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억제하는 성향'으로 정의되며(Coplan, Prakash, O'Neil, & Armer, 2004) 어떤 동기에 의해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억제하게 되느냐에 따라 수줍음, 사회적 무관심, 사회적 회피 등 세 가지 하위유형으로 구분된다(Asendorpf, 1990). 수줍음은 또래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접근 동기와 또래를 피하고자 하는 회피 동기가 모두 높아 서로 갈등하는 성향을, 사회적 무관심은 접근 동기와 회피동기가 모두 낮은 성향을 의미하며, 사회적 회피는 접근 동기는 낮고 회피 동기는 높

아 적극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회피하는 성향에 해당된다(Coplan, Ooi, Xiao, & Rose-Krasnor, 2018).

사회적으로 위축된 유아들은 교육기관 적응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또래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가지 못해 기관에서 부적응을 경험할 위험이 높다(Rubin, Coplan, & Bowker, 2009). 유아들이 교육기관에서 주로 상호작용하는 대상이 교사와 또래이기 때문에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 된다(윤지은, 장영숙, 2011; Ironsmith & Poterat, 1990; Ladd, 1990). 또한 긍정적인 또래관계는 유아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적응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연습할 수 있는 장(場)이 되어줌으로써(Erwin, 1998; Raver & Zigler, 1997) 유아의 기관 적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위축된 유아들의 경우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억제하려는 성향으로 인해 친밀한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향을 보이며(Coplan, Arbeau, & Armer, 2008; Coplan et al., 2018; Coplan et al., 2004; Sette, Baumgartner, & Schneider, 2014), 이는 유아교육기관 적응에까지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아의 사회적 위축이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부적응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Coplan et al., 2008; Coplan & Armer, 2005; Coplan et al., 2018; Harrist, Zaia, Bates, Dodge, & Pettit, 1997; Wu et al., 2015)은 이를 뒷받침해준다. Graham과 Coplan(2012)의 연구에 따르면 수줍음을 많이 타는 유아일수록 기관에서 사회·정서적 부적응을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아의 사회적 무관심과 사회적 회피 또한 기관에서의 또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변인으로 밝혀졌다(Coplan et al., 2018; Coplan et al., 2004). 그러나 사회적 상호작용을 억제하게 만드는 동기가 무엇인지에 따라 적응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Coplan & Armer, 2005; Coplan, Ooi, & Nocita, 2015) 사회적 위축의 하위유형별로 유아교육기관 적응과의 관계를 비교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위축의 하위유형인 수줍음, 사회적 무관심, 사회적 회피가 유아교육기관 적응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비교함으로써 사회적 위축의 하위유형과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이론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위축된 유아들이 긍정적인 또래 상호작용을 부족하게 경험하게 되어 유아교육기관에서 부적응을 보일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지만 일부 연구들은 사회적 위축이 교육기관에서의 부적응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Chen, Rubin, & Li, 1995; Coplan et al., 2018; Coplan & Week, 2009). 이와 같이 연구 결과들이 서로 불일치하는 이유는 사회적 위축과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가 다른 요인의 영향에 의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두 변수와 관련이 있는 여러 요인들이 두 변수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기관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인간 요인인 교사와 어머니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교사-유아 관계와 어머니의 자녀 또래관계 관리전략이 사회적 위축과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과 관련된 대인간 요인 중 특히 교사-유아 관계는 기관에서의 학습 및 사회·정서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이므로(Hamre & Pianta, 2001; Ladd, Birch, & Buhs, 1999)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아들은 교사를 안전기지로 삼아 기관의 환경을 탐색해가고(Birch & Ladd, 1997), 교사와의 관계를 기반으로 기관에서의 경험을 조직화하기 때문에(Howes, 2000) 긍정적인 교사-유아관계는 유아가 기관에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처럼 교사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유아의 기관 적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교사-유아 관계는 유아의 기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다뤄져 왔다(신유림, 윤수정, 2009; Birch & Ladd, 1997; Ladd & Burgess, 2001).

교사-유아 관계가 유아의 사회적 위축과 유아교육기관 적응의 관계를 조절해주는지에 대해 살펴본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친밀한 교사-유아 관계는 수줍은 유아가 기관에서 잘 참여하지 않고 내면화 문제를 보이는 등 부적응을 경험할 위험을 완화해주는 것으로 나타난(Arbeau & Coplan, 2007; Wu et al., 2015) 반면, 갈등적인 교사-유아 관계는 수줍은 유아가 기관에서 낮은 사회적 유능성을 보일 위험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Sette et al., 2014). 그러나 Wu 등(2015)의 연구는 갈등적인 교사-유아 관계가 수줍음과 기관 적응의 관계를 조절하지 않는다고 보고하며 이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의존적인 교사-유아 관계는 수줍음이 기관에서의 협동적 참여와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ette et al., 2014; Wu et al., 2015).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친밀한 교사-유아 관계는 사회적 위축 성향의 유아들이 기관에서 부적응을 경험할 위험을 완화해 줄 것이고, 갈등적인 관계와 의존적인 관계는

이러한 위험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 그러나 서로 불일치하는 결과들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해 좀 더 많은 연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 사회적 위축성향 중 수줍은 유아들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왔기 때문에 교사-유아 관계가 사회적 위축과 유아교육기관 적응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사회적 위축의 하위유형별로 그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선행 연구에서 교사-유아 관계는 대부분 교사의 보고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교사-유아 관계에 대한 교사의 지각과 유아의 지각이 서로 다를 수 있고(Pianta, Hamre, & Stuhlman, 2003), 교사의 지각 못지않게 유아의 지각 또한 아동의 기관 적응에 중요한 기여를 하므로(Valeski & Stripek, 2001) 교사-유아 관계 대한 유아의 지각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사-유아 관계를 유아의 보고로 측정하여 유아가 지각하는 교사-유아 관계가 사회적으로 위축된 유아의 기관 적응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유아교육기관에서는 교사가 제 2의 양육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유아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는 역시 어머니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어머니의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유아의 기관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머니 관련 변인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위축 성향의 유아들이 특히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위험이 높다는 점(Rubin, Bowker, & Gazelle, 2010)을 고려하여 또래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육행동인 자녀 또래관계 관리전략(Ladd, Le Sieur, & Profilet, 1993)에 초점을 두어 연구하였다.

또래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또래와의 상호작용 기술을 가르치는 등 부모가 자녀의 또래관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긍정적인 또래 상호작용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유아의 기관 적응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인홍과 김송이(2017)는 어머니의 자녀 또래관계 관리전략이 자유선택활동 시간의 또래 상호작용을 예측한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적절한 또래관계 관리가 유아의 사회적 위축이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볼 수 있다.

권연희(2015)의 연구에서 유아의 수줍음이 또래괴롭힘 피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어머니의 또래관계 관리전략이 완화시켜준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나 또래관계에서의 부적응에 대해서만 살펴보았고, 사회적 위축의 여러 유형 중 하나인 수줍음에 대해서만 연구하였다. 이처럼 사회적 위축과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자녀 또래관계 관리전략의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는 교사-유아 관계의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위축과 유아교육기관 적응의 관계에서 교사-유아 관계의 조절효과에 더해 어머니의 자녀 또래관계 관리전략의 조절효과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과 기관이라는 유아의 외적 환경 요인에 따라 유아의 사회적 위축과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자녀 또래관계 관리전략과 유아교육 현장에서

의 교사-유아 관계가 유아의 사회적 위축과 유아교육기관 적응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조절적 역할을 하는지 규명해보고, 이를 통해 어머니와 교사가 유아의 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밝혀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유아는 교사와 어머니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 환경에서 성장하고 발달해 가기 때문에 교사와 어머니가 유아의 사회적 위축과 유아교육기관 적응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적 영향을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사회적 위축을 보이는 유아의 기관 적응에 있어서 어머니와 교사의 역할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유아의 사회적 위축에 대한 이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유아의 기관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바람직한 유아 지도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유아의 사회적 위축(수줍음, 사회적 무관심, 사회적 회피), 유아교육기관 적응, 교사-유아 관계, 어머니의 자녀 또래관계 관리전략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의 사회적 위축(수줍음, 사회적 무관심, 사회적 회피)이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교사-유아 관계와 어머니의 자녀 또래관계 관리전략에 따라 달라지는가?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에 심사를 의뢰하여 2018년 6월 5일자로 연구 승인(SKKU 2018-06-002)을 받았으며, 서울·경기 및 충청 지역에 위치한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만 4-6세 유아와 어머니 156쌍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유아의 성별은 남아가 67명(42.9%), 여아가 89명(57.1%)으로 여아의 비율이 좀 더 높았고, 평균 월령은 67.20개월(55개월~80개월)이었으며, 평균 재원기간은 30.25개월(1개월~65개월)이었다.

### 연구도구

#### 사회적 위축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사회적 위축을 측정하기 위해 Coplan 외(2018)가 개발한 Child Social Preference Scale-3(CSPS-3)를 번안해 사용하였다. CSPS-3는 본래 부모용 설문지로 개발되었으나 부모보다는 매일 유아들 간의 상호작용을 관찰하는 교사들이 유아의 사회적 위축 성향을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교사가 유아의 사회적 위축을 평정하도록 했다. CSPS-3는 수줍음 유형 7문항, 사회적 무관심 유형 4문항, 사회적 회피 유형 4문항,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평소 유아가 보인 행동을 근거로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 리커트식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분석 시에는 하위유형별로 해당되는 문항의 점수를 더해 문항 수로 나눈 평균 점수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하위유형의 사회적 위축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사회적

위축 전체 문항의 Cronbach's  $\alpha$  값은 .87이었으며, 하위유형인 수줍음, 사회적 무관심, 사회적 회피의 Cronbach's  $\alpha$  값은 각각 .81, .78, .74였다.

### 유아교육기관 적응

유아교육기관 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Jewswan, Luster와 Kostelnik(1993)이 개발한 유치원 적응 평가 질문지(Preschool Adjustment Questionnaire: PAQ)를 본 연구자가 번안해 사용하였다. PAQ는 친사회적 행동(5문항), 긍정적 정서(4문항), 또래 간 적응(6문항), 자아 강도(6문항), 일과 적응(7문항) 등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교사용 질문지로서 해당 유아의 특성과 일치하는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로 이어지는 5점 척도에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영역에서의 전체적인 적응 수준을 알아보려고 했기 때문에 각 요인별 평균 점수를 더해 총점을 계산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 잘 적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유아교육기관 적응 전체 문항의 Cronbach's  $\alpha$  값은 .95였다.

### 유아가 지각하는 교사-유아 관계

유아가 지각하는 교사-유아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Mantzicopoulos와 Neuharth-Pritchett(2003)가 개발한 Y-CATS(Young Children's Appraisals of Teacher Support)를 번안해 사용했다. 이 도구는 세 가지 하위요인인 따뜻함/지지(11문항), 갈등(10문항), 자율성(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7문항이다. 본 연구자가 문항들을 검토한 결과, 이 중 자율성에 해당하는 6문항은 교사와의 관계라기보다는 놀이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일들에 관한 문항들이

어서 유아들을 혼동시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자율성 요인을 제거하고, 따뜻함/지지 요인 11문항과 갈등 요인 10문항만을 연구에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본 연구자가 기관에 마련된 조용한 공간에서 약 10분 간 개별 유아를 면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검사 시에는 먼저 1-2분 동안 유아와 라포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검사의 요령을 설명한 후에 유아의 응답을 비밀로 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구체적인 검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검사자가 카드에 적힌 문항의 내용(예)△△반 선생님은 ○○를 좋아하신다)을 소리 내어 읽은 후에 카드를 유아에게 건네주고 유아가 카드에 적힌 내용에 동의하면 카드를 O표 상자에 넣고, 동의하지 않으면 카드를 X표 상자에 넣는다. O표 상자 넣은 경우, 그림 응답지에서 큰 원과 작은 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문항 내용에 동의하는 정도를 응답한다. X표 상자 넣은 경우, 그림 응답지에서 큰 엑스와 작은 엑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문항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정도를 응답한다. 실제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두 개의 연습 문항(예) △△반 선생님은 ○○보다 키가 크다)을 통과한 경우에만 실제 검사를 진행하였다. 연습 문항에 올바르게 답하지 못한 유아는 총 2명이었으며 이 2명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각 문항의 점수는 4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되며(큰 엑스=1, 작은 엑스=2, 작은 원=3, 큰 원=4), 하위요인별 점수는 각 문항의 점수를 모두 더한 총점을 문항의 수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따뜻함/지지 혹은 갈등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뜻함/지지와 갈등의 Cronbach's  $\alpha$  값은 각각 .69, .74였다.

### 어머니의 자녀 또래관계 관리전략

어머니의 자녀 또래관계 관리전략은 Cohen (1989)의 Parental Involvement Checklist(PIC)를 박주희(2001)가 번안·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PIC는 어머니용 질문지로서 자녀의 또래관계에 개입하는 행동의 빈도를 '전혀 안함(1)'에서 '일주일에 여러 번(6)'까지 이어지는 6점 척도에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어머니의 또래관계 관리전략은 두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요인은 중개·감독 전략(12문항)으로 유아가 또래와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주거나 또래와 상호작용하는 상황 혹은 소재를 파악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두 번째 요인은 조언·관심 전략(12문항)으로 유아가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도록 조언해주고 이야기를 나누며, 유아의 또래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현하는 행동에 관한 것이다.

분석 시에는 하위요인별 평균점수를 사용하였다. 전체 문항의 Cronbach's  $\alpha$  값은 .92이었으며, 하위요인인 중개·감독 전략과 조언·관심 전략의 Cronbach's  $\alpha$  값은 각각 .89, .90이었다.

## 결 과

###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예비분석

본 분석에 앞서 각 변인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된 변인들의 범위,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조사된 변인 중 주요 변인들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들이 있는지 살피고 이를 통제하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표 1). 그 결과, 유아의 성별은 유아교육기관 적응과 부적 상관( $r=-.178, p<.05$ )을 보였고, 교사와의 갈등과는 정적 상관( $r=.206, p<.01$ )을 보였으며, 이는 남아들이 여아들에 비해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적응을 어려워하고 교사와의 관계에서도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월령( $r=-.291, p<.001$ )과 재원기간( $r=-.257, p<.01$ )은 교사의 따뜻함/지지와 부적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월령이 높고 재원기간이 긴 유아일수록 교사로부터 따뜻한/지지를 덜 느낀다고 보고한 것이다.

이와 같이 유아의 성별, 월령, 재원기간이 조절변인, 종속변인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므로, 이후에 시행되는 분석에서는 유아의 성별과 월령, 재원기간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유아의 사회적 위축, 유아교육기관 적응, 교사-유아 관계, 어머니의 자녀 또래관계 관리전략 간의 관계

유아의 사회적 위축, 유아교육기관 적응, 교사-유아 관계, 어머니의 자녀 또래관계 관리전략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예비분석에서 조절변인, 종속변인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준 성별과 월령, 재원기간을 통제한 편상관계수도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유아교육기관 적응은 교사-유아 관계나 어머니의 자녀 또래관계 관리전략과는 상관이 없었지만, 유아의 수줍음( $r=-.58, p<.001$ ), 사회적 무관심( $r=-.35, p<.001$ ), 사회적 회피( $r=-.43, p<.001$ )와는 모두 유의한 부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떤 동기에 의해서

표 1. 측정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변인 간 상관 및 편상관 (N=156)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 성별	1										
2. 월령	-.01	1									
3. 재원 기간	.04	.21**	1								
4. 수줍음	.01	-.02	.01	1							
5. 사회적 무관심	.00	-.02	-.06	.45*** (.45***)	1						
6. 사회적 회피	-.04	.14	-.01	.53*** (.54***)	.48*** (.49***)	1					
7. 따뜻함/ 지지	-.15	-.29**	-.26**	-.03 (-.03)	.01 (-.00)	-.12 (-.10)	1				
8. 갈등	.21**	-.04	.03	-.05 (-.05)	.01 (.01)	-.01 (.01)	-.14 (-.12)	1			
9. 중개·감독	-.02	.00	.06	-.13 (-.13)	-.17* (-.17*)	-.17* (-.17*)	.05 (.07)	.18* (.18*)	1		
10. 조언·관심	-.16	.10	.01	.05 (.05)	-.08 (-.08)	-.07 (-.09)	.05 (.06)	.06 (.10)	.51*** (.52***)	1	
11. 기관적응 총점	-.18*	.00	.03	-.58*** (-.59***)	-.35*** (-.35***)	-.43*** (-.45***)	.09 (.07)	-.10 (-.07)	.08 (.07)	-.01 (-.04)	1
평균	-	67.20	30.25	1.95	2.37	1.47	3.56	1.81	3.04	4.28	4.01
표준편차	-	7.39	14.68	.60	.73	.50	.40	.53	1.10	1.03	.50
점수 범위	0~1	48~83	0~79	1~5	1~5	1~5	1~4	1~4	1~6	1~6	1~5

Note. ( )는 성별, 월령, 재원기간을 통제 한 편상관계수

\* $p < .05$  \*\* $p < .01$  \*\*\* $p < .001$

사회적 위축 행동을 보이는지와 관계없이 사회적 위축 행동을 많이 보이는 유아일수록 기관에서의 적응을 어려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중개·감독 전략은 유아의 사회적 무관심( $r = -.17, p < .05$ ), 사회적 회피( $r = -.17, p < .05$ ), 교사와의 갈등( $r = .18, p < .05$ )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중개·감독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유아일수록 사회적 무관심, 사회적 회피 성향을 적게 보

이고, 교사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유아의 사회적 위축과 유아교육기관 적응의 관계에서 교사-유아 관계와 어머니의 자녀 또래관계 관리전략의 조절효과

마지막으로 유아의 사회적 위축과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를 교사-유아 관계와 어머니의 자녀 또래관계 관리전략이 조절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독립변인과 조절변인, 상호작용항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차한계가 .645~.928로 0.1 이상이었으며, VIF는 1.078~1.551로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위축의 하위요인별로 독립적인 모형을 만들어 검정하였으므로 총 3번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는 아래와 같다.

**유아의 수줍음과 유아교육기관 적응의 관계에서 교사-유아 관계와 어머니의 자녀 또래관계 관리전략의 조절효과**

수줍음이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교사-유아 관계와 어머니의 자녀 또래관계 관리전략이 조절하는지를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있다.

먼저 통제 변인인 유아의 성별, 월령, 재원기간이 포함된 1단계 연구 모형의 설명력은 3%( $p>.05$ )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표 2. 수줍음과 유아교육기관 적응의 관계에서 교사-유아관계와 어머니의 자녀 또래관계 관리전략의 조절효과 검정 (N=156)

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B	$\beta$	B	$\beta$	B	$\beta$
성별	-.90	-.18*	-.80	-.16*	-.64	-.13
월령	-.00	-.01	-.01	-.02	.00	.00
재원기간	.01	.04	.01	.06	.01	.05
수줍음			-2.41	-.59***	-2.28	-.55***
교사-유아 따뜻함/지지			.28	.05	.25	.04
교사-유아 갈등			-.44	-.10	-.57	-.12
어머니의 중개·감독			.03	.01	.04	.02
어머니의 조연·관심			-.03	-.01	-.08	-.03
수줍음×따뜻함/지지					2.02	.21**
수줍음×갈등					.55	.07
수줍음×중개·감독					-.38	-.10
수줍음×조연·관심					.034	.01
R <sup>2</sup>	.03		.39		.44	
$\Delta R^2$			.35***		.04*	
F	1.73		11.49***		8.91***	

\*  $p < .05$  \*\*  $p < .01$  \*\*\*  $p < .001$

않았고, 독립변인인 수줍음과 조절변인인 교사-유아 관계와 어머니의 자녀 또래관계 관리 전략을 추가로 투입한 2단계에서는 1단계에 비해 설명력이 35% 증가하였다( $p < .001$ ).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상호작용항을 포함시켜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2단계에 비해 연구 모형의 설명력이 4% 증가하여( $p < .05$ )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3단계에 투입된 상호작용항 중에서 유아의 수줍음과 교사의 따뜻함/지지 상호작용항( $\beta = .21, p < .01$ )은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을 통제 한 이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따뜻함/지지의 조절효과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Aiken과 West(1991)의 방법에 근거하여 상호작용 그래프를 작성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1을 살펴보면 교사로부터 따뜻함/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느끼는 집단과 적게 받는다고 느끼는 집단 모두 수줍음 수준이 높을 때 기관 적응 점수가 낮게 나타나지만, 기울기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사로부터 따뜻함/지지를 많이 받는다

고 느끼는 집단의 경우 수줍음이 높아짐에 따라 유아교육기관 적응 점수가 완만하게 감소했지만, 교사로부터 따뜻함/지지를 적게 받는다고 느끼는 집단은 유아교육기관 적응 점수가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감소했다. 이는 수줍음이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교사의 따뜻함/지지를 통해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유아의 사회적 무관심과 유아교육기관 적응의 관계에서 교사-유아 관계와 어머니의 자녀 또래관계 관리전략의 조절효과

사회적 무관심과 유아교육기관 적응의 관계에서 교사-유아 관계와 어머니의 자녀 또래관계 관리전략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수줍음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통제 변인이 포함된 1단계 연구 모형의 설명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2단계에서는 1단계에 비해 설명력이 14% 증가하였다( $p < .001$ ).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상호작용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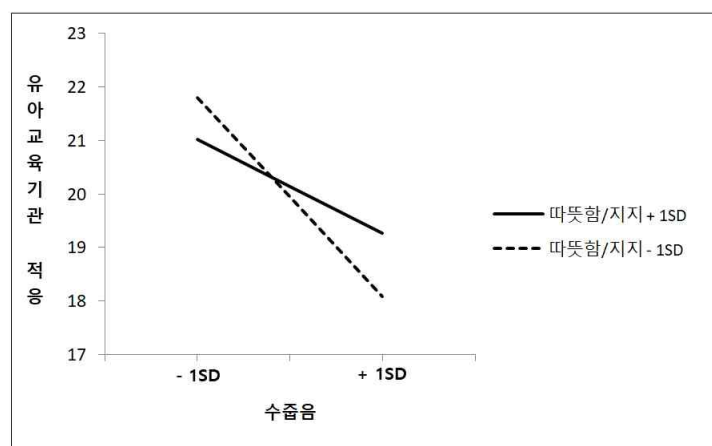


그림 1.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대한 수줍음과 교사의 따뜻함/지지의 상호작용 효과

표 3. 사회적 무관심과 유아교육기관 적응의 관계에서 교사-유아관계와 어머니의 자녀 또래관계 관리전략의 조절효과 검증 (N=156)

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B	$\beta$	B	$\beta$	B	$\beta$
성별	-.90	-.18*	-.85	-.17*	-.99	-.20*
월령	-.00	-.01	.01	.02	-.00	-.00
재원기간	.01	.04	.01	.03	-.00	-.01
사회적 무관심			-1.15	-.34***	-1.17	-.35***
교사-유아 따뜻함/지지			.44	.07	.42	.07
교사-유아 갈등			-.29	-.06	-.16	-.03
어머니의 중개 · 감독			.17	.08	.22	.10
어머니의 조언 · 관심			-.26	-.11	-.36	-.15
사회적 무관심×따뜻함/지지					1.74	.21**
사회적 무관심×갈등					.55	.09
사회적 무관심×중개 · 감독					-.55	-.18
사회적 무관심×조언 · 관심					.76	.22*
R <sup>2</sup>	.03		.17		.24	
$\Delta R^2$			.14***		.07*	
F	1.73		3.71**		3.75***	

\*  $p < .05$  \*\*  $p < .01$  \*\*\*  $p < .001$

까지 모두 투입하여 2단계에 비해 모형의 설명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는지 살펴본 결과, 연구 모형의 설명력이 7% 증가하여( $p < .05$ ) 조절효과가 유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절효과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3단계에 투입된 상호작용항 중에서 유아의 사회적 무관심과 교사의 따뜻함/지지 상호작용항( $\beta = .21, p < .01$ )과 사회적 무관심과 어머니의 조언 · 관심 상호작용항( $\beta = .22, p < .05$ )은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주효과를 통제한 이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교사의 따뜻함/지지와 어머니의 조언 · 관심

수준이 유아의 사회적 무관심과 유아교육기관 적응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Aiken과 West(1991)가 제시한 방법을 따라 상호작용 그래프를 작성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나타난 상호작용 효과의 성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를 보면 교사로부터 따뜻함/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느끼는 집단과 적게 받는다고 느끼는 집단 모두 사회적 무관심 점수가 증가할수록 기관 적응 점수가 감소하지만, 두 집단의 기울기가 다르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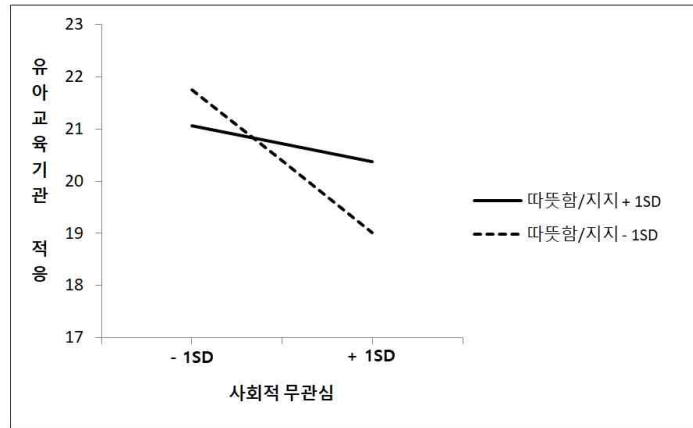


그림 2.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과 교사의 따뜻함/지지의 상호작용 효과

을 알 수 있다. 교사로부터 따뜻함/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느끼는 집단의 경우 사회적 무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유아교육기관 적응 점수가 완만하게 감소했지만, 교사로부터 따뜻함/지지를 적게 받는다고 느끼는 집단은 유아교육기관 적응 점수가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감소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의 따뜻함/지지가 사회적 무관심이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켜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아의 사회적 무관심과 어머니의 조언·관심의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어머니의 조언·관심의 조절효과에 대한 그래프 또한 교사의 따뜻함/지지의 조절효과에 대한 그래프와 비슷한 형태를 보여주었다. 두 집단 모두 사회적 무관심이 높을수록 기관 적응을 어려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어머니로부터 조언·관심을 덜 받는 유아들의 경우 더욱 가파른 감소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무관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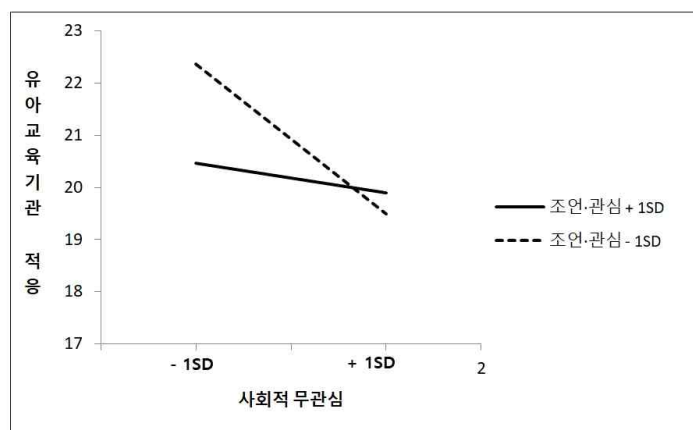


그림 3.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과 어머니의 조언·관심의 상호작용 효과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어머니의 조언·관심을 통해 완화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유아의 사회적 회피와 유아교육기관 적응의 관계에서 교사-유아 관계와 어머니의 자녀 또래관계 관리전략의 조절효과**

마지막으로 사회적 위축의 하위유형 중 사회적 회피가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교사-유아 관계와 어머니의 자녀 또래관계 관리전략이 조절하는지를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앞서 실시한 회귀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통제 변인이 포함된 1단계 연구 모형의 설명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2단계에서는 1단계에 비해 설명력이 21% 증가하였다( $p < .001$ ). 그러나 사회적 회피 모형에서는 상호작용항까지 모두 투입한 3단계에서 모형의 설명력이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아본 연구에서 가정한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사회적 회피와 유아교육기관 적응의 관계에서 교사-유아관계와 어머니의 자녀 또래관계 관리전략의 조절효과 검증 (N= 156)

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B	$\beta$	B	$\beta$	B	$\beta$
성별	-.90	-.18*	-.98	-.20*	-.90	-.18*
월령	-.00	-.01	.03	.08	.02	.07
재원기간	.01	.04	.00	.02	.00	.02
사회적 회피			-2.20	-.45***	-2.08	-.42***
교사-유아 따뜻함/지지			.16	.03	.13	.02
교사-유아 갈등			-.29	-.06	-.29	-.06
어머니의 중개·감독			.14	.06	.13	.06
어머니의 조언·관심			-.26	-.11	-.28	-.12
사회적 회피×따뜻함/지지					1.66	.15
사회적 회피×갈등					1.12	.11
사회적 회피×중개·감독					-.73	-.17
사회적 회피×조언·관심					.44	.09
R <sup>2</sup>	.03		.24		.28	
$\Delta R^2$			.21***		.04	
F	1.73		5.88***		4.64***	

\*  $p < .05$  \*\*\*  $p < .001$

## 논 의

본 연구는 만 4-6세 유아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유아의 사회적 위축, 유아교육기관 적응, 교사-유아 관계, 어머니의 자녀 또래관계 관리전략의 관계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유아의 사회적 위축과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에서 교사-유아 관계와 어머니의 자녀 또래관계 관리전략이 조절효과를 갖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요약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유아의 사회적 위축, 유아교육기관 적응, 교사-유아 관계, 어머니의 자녀 또래관계 관리전략 간의 관계

주요 변인들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성별, 월령, 재원 기간을 통제한 뒤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아교육기관 적응은 사회적 위축의 하위유형인 수줍음, 사회적 무관심, 사회적 회피와 모두 부적 상관을 보여주었으며, 이를 통해 유아의 수줍음뿐만 아니라 사회적 무관심과 사회적 회피도 기관에서의 부적응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수줍은 유아일수록 기관에서 사회·정서적 부적응을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보여준 기존의 연구결과들(Coplan & Armer, 2005; Graham & Coplan, 2012; Sette et al., 2014)과 일치하는 결과이며, 비교적 적게 연구되어 온 사회적 무관심, 사회적 회피와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경험적 근거를 제공해준다. 사회적 무관심, 사회적 회피가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부적응과 관련이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무관심을 많이 보이는

유아일수록 기관에서 또래와의 적응을 어려워한다는 Coplan 외(2004)의 연구 결과와도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사회적 회피가 사회·정서적 부적응으로 이어질 위험이 특히 높다는 Asendorpf (1990)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유아교육기관 적응은 교사-유아 관계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유아 관계가 유아의 기관 적응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힌 연구결과들(Baker, 2006; Hamre & Pianta, 2001; Ladd et al., 1999)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와 불일치하는 결과가 나온 것은 본 연구에서 교사-유아 관계를 유아 면담을 통해 측정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학생과의 관계에 대한 교사의 지각은 학생의 행동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Brophy & Rohrkemper, 1981; Kuklinski & Weinstein, 2000) 교사-유아 관계를 교사의 보고로 측정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유아의 기관 적응 수준이 교사-유아 관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유아의 지각은 관계 속에서 신뢰나 따뜻함을 얼마나 느끼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Spilt, Koomen, & Mantzicopoulos, 2010), 본 연구에서와 같이 기관 적응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일 수 있다.

또한 유아교육기관 적응과 어머니의 자녀 또래관계 관리전략 간의 상관관계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영향을 자녀의 또래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만 국한시켜 연구하였기 때문에 자녀의 기관 적응 전반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종합해보면, 유아교육기관 적응은 교사-유아 관계와 어머니의 자녀 또래관계 관리전략이라는 대인간

변인보다는 사회적 위축이라는 개인 내적 변인과 좀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어머니의 자녀 또래관계 관리전략은 유아교육기관 적응과는 상관이 없었지만, 또래관계 관리전략의 하위요인 중 어머니의 중개·감독 전략은 유아의 사회적 무관심과 사회적 회피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여주었다. 이는 어머니들이 중개·감독 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유아의 또래유능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힌 연구들과(박주희, 이은혜, 2001; 이지희, 2008) 맥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인과관계의 양방성을 고려해보았을 때, 본 연구의 결과는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어머니가 자녀의 또래관계에 대해 잘 파악하고 또래와 상호작용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주었기 때문에 자녀의 사회적 무관심, 사회적 회피 성향이 낮게 나타난 것일 수도 있고, 반대로 자녀가 또래관계에 있어 무관심하고 회피적인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녀의 또래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상호작용의 기회를 만들어주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다.

어머니의 중개·감독 전략은 교사와 유아 간의 갈등과는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었다. 즉, 어머니가 자녀의 또래관계에 대해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또래와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줄수록 유아는 교사와의 관계를 갈등적이라고 지각했다는 것이다. 어머니로부터 또래관계에 관한 도움을 일대일로 자주 받아온 유아의 경우, 기관에서 스스로 또래관계를 맺어가야 하는 상황에 노출되면서 또래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게 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교사와 갈등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일 수 있다.

유아의 사회적 위축과 유아교육기관 적응의 관계에서 교사-유아 관계와 어머니의 자녀 또래관계 관리전략의 조절효과

유아의 사회적 위축의 하위유형 중 수줍음과 유아교육기관 적응의 관계가 교사-유아 관계와 어머니의 자녀 또래관계 관리전략에 따라 달라지는지 검증한 결과, 교사의 따뜻함/지지가 유아의 수줍음과 유아교육기관 적응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절효과 그래프를 통해 수줍음이 많은 유아일수록 기관에서 적응을 어려워하지만 교사가 교사로부터 따뜻함과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느끼는 경우 수줍음의 부정적 영향이 감소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수줍은 유아일수록 기관에서 학습활동에 독립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낮은 사회적 유능감을 보이고, 기관을 덜 선호하게 될 위험이 높지만 교사와 유아 간의 친밀한 관계가 이러한 위험을 완화시켜준다고 밝힌 기존의 선행연구들(Arbeau & Coplan, 2007; Sette et al., 2014; Wu et al., 2015)과 일치하는 결과이며, 교사가 유아에게 보내는 따뜻함과 지지가 수줍은 유아의 기관 적응에 있어서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애착이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교사의 지지는 유아의 정서적 안정감을 높여줄 수 있는데(Thijs & Koomen, 2008), 특히 수줍은 유아들의 경우 사회적 관계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빈번하게 경험하기 때문에 교사의 지지의 역할이 더욱 강력한 효과를 보인 것일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 무관심과 유아교육기관 적응의 관계에서 교사-유아 관계와 어머니의 자녀 또래관계 관리전략의 조절효과가 유의한지

에 대해 살펴본 결과, 교사의 따뜻함/지지와 어머니의 조언·관심 전략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효과에 대한 그래프 분석 결과, 유아가 교사로부터 따뜻함/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느낄수록, 그리고 어머니가 자녀의 또래관계에 대해 조언과 관심을 많이 표현해줄수록 사회적 무관심이 기관 적응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약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무관심을 보이는 유아들이 유아교육기관 적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또래관계를 원만하게 맺지 못해 기관에서 부적응을 경험하게 될 수 있으나 교사와 어머니의 지원이 사회적 무관심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켜줄 것이라고 가정한다.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사회적 무관심을 보이는 유아의 경우 또래들이 이들의 행동을 냉담함으로 잘못 해석하여 놀이 상황에서 배제당하는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Coplan et al., 2004; Coplan, Girardi, Findlay, & Frohlick, 2007). 그러나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아동의 행동에 대한 교사의 피드백이 그 아동에 대한 또래들의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White & Kistner, 1992) 교사가 사회적 무관심을 보이는 유아를 따뜻하게 대해줬을 경우 또래들이 그 유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선호할 가능성도 높아졌을 것이다. 이처럼 사회적 상호작용에 무관심한 유아라고 하더라도 교사의 지지를 발판으로 삼아 또래와도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 것이고 이는 기관에서의 원활한 적응으로까지 이어졌을 것이다.

또래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조언과 관심 또한 사회적 무관심을 보이는 유아가 기관에서 또래와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적응을 도왔을 것이라고 사료

되며, 이는 어머니가 자녀의 또래관계에 대해 조언과 지지를 많이 할수록 여아의 대인적응성이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서유진, 도현심, 최미경, 2006)로 뒷받침될 수 있다. 사회적 무관심을 보이는 유아의 경우 수줍음이나 사회적 회피 성향의 유아와는 달리 매력적인 사회적 제안이 주어졌을 때에는 타인과 문제없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으므로(Asendorpf, 1993) 어머니의 조언과 관심 등 간접적인 형태의 전략이 효과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사회적 회피 성향이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교사-유아관계와 어머니의 자녀 또래관계 관리전략이 조절해주는지 분석한 결과,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앞서 살펴본 수줍음과 사회적 무관심을 독립변인으로 한 모형에서는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사회적 회피 성향이 수줍음이나 사회적 무관심보다 심각한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나 또래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도움만으로는 사회적 회피 성향의 유아의 기관적응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짐작해볼 수 있다.

사회적 회피가 가장 부적응적인 형태의 사회적 위축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초등학교 이상의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Bowker & Raja, 2011; Coplan et al., 2013; Sang et al., 2018) 수줍음이나 사회적 무관심보다 사회적 회피가 또래관계 문제나 정서적 문제, 사회적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내면화 문제와 더 많은 관련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5-7세 아동이 사회적 위축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념에 관해



조사한 Ding 외(2015)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연구 대상 아동들 또한 사회적 회피 성향의 또래들이 학급에서 부정적 결과를 가장 많이 보여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일부 연구자들은 사회적 회피를 수줍음의 극단적인 형태라고 보기도 한다(Coplan et al., 2018). 수줍은 아동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걱정이 심해져 접근 동기를 더 잃게 되거나(Schmidt & Fox, 1999) 부정적 또래관계를 경험하며 회피동기가 더욱 강해져서(Bowker & Raja, 2011; Coplan, Ooi, Rose-Krasnor, & Nocita, 2014), 원래 가지고 있던 수줍음 성향이 사회적 회피 성향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적 회피 성향의 유아는 수줍은 유아나 사회적으로 무관심한 유아보다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수의 유아들이 있는 기관에서 지내는 것이 특히 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회피 성향 유아의 기관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교사의 지지나 또래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어머니의 노력을 넘어서서 더욱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가 가지는 시사점과 의의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교사-유아 관계와 어머니의 자녀 또래관계 관리전략의 조절적 역할을 동시에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지금까지 이뤄진 연구에서는 교사의 영향과 어머니의 영향을 따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교사-유아 관계와 어머니의 자녀 또래관계 관리전략의 영향을 하나의 모형 안에서 살펴봄으로써 교사의 역할에 대해 알아볼 때는 어머니의 역할을,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 알아볼 때는 교사의 역할을 통제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으로 위축된 유아를 지도할 시 기관에서의 교사의 역할과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위축을 위축행동의 배경이 되는 동기에 따라 세 가지 하위유형으로 구분하여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세 가지 하위유형은 서로 다른 관계의 양상을 보여주었다. 특히 수줍음과 사회적 무관심에서는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사회적 회피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과는 사회적 회피가 유아기에도 다른 하위유형과 구분되는 고유한 특성으로 다뤄져야 하고 이들의 기관 적응을 돕기 위한 다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직접 유아를 면담하는 방법을 통해 교사-유아 관계를 측정하였다는 점 또한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는 교사-유아 관계를 교사 설문지로 측정해왔지만 관계란 둘 이상의 개체가 함께 맺어가는 것이므로 교사-유아 관계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시각뿐만 아니라 유아의 시각도 조사해야 한다. 본 연구는 유아가 교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 사회적 위축성향의 정도가 달라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하였으며, 유아가 느끼는 교사의 따뜻함과 지지가 위축된 유아들의 기관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위축된 유아들의 기관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지지적인 학급 환경을 조성하고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유아의 생각에도 귀를 기울이며 유아들과 협력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는 동시에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 상호관련성을 살펴보았으나 상관관계에 기초한 횡단적 연구이므로 인과관계의 방향성을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관계가 이후 연령에도 유지되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여러 시점에 걸쳐 측정된 종단자료를 바탕으로 아동의 교육기관 적응 수준이 연령이 증가함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위축과 교사와의 관계, 어머니의 자녀 또래관계 관리전략의 상호작용 효과가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하는지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어머니의 자녀 또래관계 관리전략을 자기보고식 설문지로 평정하게 했다는 점 또한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설문지 연구는 기본적으로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보고식 설문지는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으로 인해 긍정적인 응답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 전화 면접이나 관찰 등을 통해 어머니가 어떤 관리전략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에 대해 조사한다면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유아만을 대상으로 연구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문화권의 유아들에게까지 일반화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집단의 응집력이 중시되어온 동양 문화권과는 달리 개인의 독립과 자립에 가치를 두는 서양 문화권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를 서양의 유아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동일하게 실시하여 문화 간 비교를 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권연희 (2015). 유아의 수줍음과 또래괴롭힘 피해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또래관계 관리전략의 조절효과. *육아지원연구*, 10(2), 75-95.
- 김인홍, 김송이 (2017).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및 부모의 또래관계 관리전략이 유아의 놀이 시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생애학회지*, 7(1), 37-53.
- 김혜수 (2015). 어머니의 정서표현 및 수용태도와 유아의 의도적 통제가 유치원 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주희 (2001).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목표,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 관리전략.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주희, 이은혜 (2001).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목표,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 관리전략. *아동학회지*, 22(4), 1-15.
- 서유진, 도현심, 최미경 (2006). 유아기 아동의 사회적 능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5), 239-249.
- 신유림, 윤수정 (2009). 교사-유아관계와 유아의 사회적 행동특성 및 유아교육기관 적응의 관련성: 유아 및 교사 지각의 비교. *유아교육연구*, 29(5), 5-19.
- 윤지은, 장영숙 (2011). 유아의 정서지능과 또래 유능성이 유치원 적응에 미치는 영향.

- 교육종합연구, 9(2), 94-115.
- 이지희 (2008).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외적 하위요인에 대한 구조 분석.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London: Sage.
- Arbeau, K. A., & Coplan, R. J. (2007). "Teach your shy child well." *The protective role of teacher-child relationships in the school adjustment of shy children*. Paper presented at Biennial Meetings for the Society for Research in Developmental Psychology, Boston, MA.
- Asendorpf, J. B. (1990). Beyond social withdrawal: Shyness, unsociability, and peer avoidance. *Human Development, 33*(4-5), 250-259.
- Asendorpf, J. B. (1993). Abnormal shyness in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4*(7), 1069-1083.
- Baker, J. A. (2006). Contributions of teacher-child relationships to positive school adjustment during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4*(3), 211-229.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irch, S. H., & Ladd, G. W. (1997). The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5*(1), 61-79.
- Bowker, J. C., & Raja, R. (2011). Social withdrawal subtypes during early adolescence in India.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9*(2), 201-212.
- Brophy, J. E., & Rohrkemper, M. M. (1981). The influence of problem ownership on teachers' perceptions of and strategies for coping with problem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3*(3), 295-311.
- Chen, X., Rubin, K. H., & Li, B. (1995). Social and school adjustment of shy and aggressive children in China.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2), 337-349.
- Coplan, R. J., Arbeau, K. A., & Armer, M. (2008). Don't fret, be supportive! Maternal characteristics linking child shyness to psychosocial and school adjustment in kindergart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6*(3), 359-371.
- Coplan, R. J., & Armer, M. (2005). Talking yourself out of being shy: Shyness, expressive vocabulary, and socioemotional adjustment in preschool. *Merrill-Palmer Quarterly, 51*(1), 20-41.
- Coplan, R. J., Girardi, A., Findlay, L. C., & Frohlick, S. L. (2007). Understanding solitude: Young children's attitudes and responses toward hypothetical socially withdrawn peers. *Social Development, 16*(3), 390-409.
- Coplan, R. J., Ooi, L. L., & Nocita, G. (2015). When one is company and two is a crowd: Why some children prefer solitude.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9*(3), 133-137.
- Coplan, R. J., Ooi, L. L., Rose Krasnor, L., & Nocita, G. (2014). 'I want to play alone': Assessment and correlates of self reported preference for solitary play in young children.

-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23(3), 229-238.
- Coplan, R. J., Ooi, L. L., Xiao, B., & Rose-Krasnor, L. (2018). Assessment and implications of social withdrawal in early childhood: A first look at social avoidance. *Social Development*, 27(1), 125-139.
- Coplan, R. J., Prakash, K., O'neil, K., & Armer, M. (2004). Do you "want" to play? Distinguishing between conflicted shyness and social disinterest in early child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40(2), 244-258.
- Coplan, R. J., Rose-Krasnor, L., Weeks, M., Kingsbury, A., Kingsbury, M., & Bullock, A. (2013). Alone is a crowd: Social motivations, social withdrawal, and socioemotional functioning in later child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49(5), 861-875.
- Coplan, R. J., & Weeks, M. (2009). Shy and soft spoken: shyness, pragmatic language, and socio-emotional adjustment in early childhood.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8(3), 238-254.
- Ding, X., Coplan, R. J., Sang, B., Liu, J., Pan, T., & Cheng, C. (2015). Young Chinese children's beliefs about the implications of subtypes of social withdrawal: A first look at social avoidance.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33(2), 159-173.
- DiPerna, J. C., Lei, P. W., & Reid, E. E. (2007). Kindergarten predictors of mathematical growth in the primary grades: An investigation using the Early Childhood Longitudinal Study-Kindergarten cohor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9(2), 369-379.
- Erwin, P. (1998). *Friendship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New York, NY: Routledge.
- Graham, A. A., & Coplan, R. J. (2012). Shyness, sibling relationships, and young children's socioemotional adjustment at preschool. *Journal of Research in Childhood Education*, 26(4), 435-449.
- Hamre, B. K., & Pianta, R. C. (2001). Early teacher-child relationships and the trajectory of children's school outcomes through eighth grade. *Child Development*, 72(2), 625-638.
- Harrist, A. W., Zaia, A. F., Bates, J. E., Dodge, K. A., & Pettit, G. S. (1997). Subtypes of social withdrawal in early childhood: Sociometric status and social cognitive differences across four years. *Child Development*, 68(2), 278-294.
- Howes, C. (2000). Social emotional classroom climate in child care, child teacher relationships and children's second grade peer relations. *Social Development*, 9(2), 191-204.
- Jewsuwan, R., Luster, T., & Kostelnik, M. (1993). The relation between parents' perceptions of temperament and children's adjustment to preschool.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8(1), 33-51.
- Kuklinski, M., & Weinstein, R. (2000). Classroom and grade level differences in the stability of teacher expectations and perceived differential teacher treatment. *Learning Environments Research*, 3(1), 1-34.
- Ironsmith, M., & Poteat, G. M. (1990). Behavioral correlates of preschool sociometric status and the prediction of teacher ratings of behavior in kindergarte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1), 17-25.
- Ladd, G. W. (1990). Having friends, keeping

- friends, making friends, and being liked by peers in the classroom: Predictors of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1(4), 1081-1100.
- Ladd, G. W., Birch, S. H., & Buhs, E. S. (1999). Children's social and scholastic lives in kindergarten: Related spheres of influence? *Child Development*, 70(6), 1373-1400.
- Ladd, G. W., & Burgess, K. B. (2001). Do relational risks and protective factors moderate the linkages between childhood aggression and early psychological and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72(5), 1579-1601.
- Ladd, G. W., Le Sieur, K. D., & Profilet, S. M. (1993). Direct parental influences on young children's peer relations. In S. Duck (Ed.), *Learning about relationships* (Vol. 2.) (pp. 152-183). Thousand Oaks, CA: Sage.
- Mantzicopoulos, P., & Neuharth -Pritchett, S. (200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easure to assess head start children's appraisals of teacher support.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1(6), 431-451.
- O'Neil, R., Welsh, M., Parke, R. D., Wang, S., & Strand, C. (1997). A longitudinal assessment of the academic correlates of early peer acceptance and reject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6(3), 290-303.
- Pianta, R. C., Hamre, B., & Stuhlman, M. (2003). Relationships between teachers and children. In W. M. Reynolds & G. E. Miller (Eds.), *Handbook of psychology: Educational Psychology* (Vol. 7) (pp. 199-234). New York, NY: Wiley.
- Raver, C. C., & Zigler, E. F. (1997). Social competence: An untapped dimension in evaluating Head Start's succes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2(4), 363-385.
- Rubin, K. H., Bowker, J., & Gazelle, H. (2010).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Peer relationships and social competence. In K. H. Rubin & R. J. Coplan (Eds.), *The development of shyness and social withdrawal* (pp. 131-156). New York, NY: Guilford Press.
- Rubin, K. H., Coplan, R. J., & Bowker, J. C. (2009).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0(10), 141-171.
- Sang, B., Ding, X., Coplan, R. J., Liu, J., Pan, T., & Feng, X. (2018). Assessment and implications of social avoidance in Chinese early adolescents.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8(4), 554-573.
- Sette, S., Baumgartner, E., & Schneider, B. H. (2014). Shyness, child-teacher relationships, and socio emotional adjustment in a sample of Italian preschool aged children.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23(3), 323-332.
- Schmidt, L. A., & Fox, N. A. (1999). Conceptual, biological, and behavioral distinctions among different categories of shy children. In L. A. Schmidt & J. Schulkin (Eds.) *Extreme fear, shyness, and social phobia: Origins, biological mechanisms, and clinical outcomes* (pp. 47-66).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Spilt, J. L., Koomen, H. M., & Mantzicopoulos, P. Y. (2010). Young children's perceptions of teacher-child relationships: An evaluation of two instruments and the role of child gender in kindergarte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 Psychology*, 31(6), 428-438.
- Thijs, J. T., & Koomen, H. M. Y. (2008). Task-related interactions between kindergarten children and their teachers: The role of emotional security.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7(2), 181-197.
- Valeski, T. N., & Stipek, D. J. (2001). Young children's feelings about school. *Child Development*, 72(4), 1198-1213.
- White, K. J., & Kistner, J. (1992). The influence of teacher feedback on young children's peer preferences and percep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8(5), 933-940.
- Wu, Y., Wu, J., Chen, Y., Han, L., Han, P., Wang, P., et al. (2015). Shyness and school adjustment among Chinese preschool children: Examining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and teacher-child relationship.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26(2), 149-166.
- 1차원고접수 : 2019. 01. 15.  
수정원고접수 : 2019. 03. 02.  
최종게재결정 : 2019. 03. 05.

**Relationship between Young Children's  
Social Withdrawal and Preschool Adjustment:  
The Moderating Effects of Teacher-Child Relationships and  
Maternal Management Strategies for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Bosun Ko**

**Jihyun Sung**

Child Psychology and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The current study examined 1) the associations among young children's social withdrawal, preschool adjustment, teacher-child relationships, and maternal management strategies for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and 2) the moderating effects of teacher-child relationships and maternal management strategies for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on the association between children's social withdrawal and preschool adjustment. Participants were 156 children aged 4-6 years(67 boys, 89 girls) and their mothers. Results indicated that shyness, social disinterest, and social avoidance were negatively related to preschool adjustment. However, teachers' warmth/support moderated the association between children's shyness and maladjustment, and teachers' warmth/support and mothers' advice-concern strategy moderated the link between children's social disinterest and maladjustment. The results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plans and practices to support socially withdrawn children's preschool adjustment.

*Key words : Social Withdrawal, Preschool Adjustment, Teacher-Child Relationships, Strategies for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Moderating Effects*